세 걸음마다 내 몸 낮춰 '구법의 길'로…

범어사 불교대학 총동문회, 11월 20일 '구법삼보일배' 진행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는 11월 20일 범어사 일대서 '구법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200여명 동문회 소속 불자 참석
개인 성취 및 국태민안 발원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법문
참가자들, 환희로 기쁨 전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며 불자들이 목탁 소리에 맞춰 절을 올렸다.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구슬땀이 떨어졌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함께 손을 모았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김도연, 이하 총동문회)는 11월 20일 범어사 일대서 '구법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총동문회는 신행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부처님께 발원하는 시간으로 열었다.

김도연 회장은 "이번 계기로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고, 또 신행으로 하나 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며 "아울러 작게는 개인의 소망과 행복을 발원하고 크게는 국가의 안온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먼저 삼보일배에 참가한 200여명은 범어사 상마마을 주차장으로 집결해 취지를 밝히고 결의를 나눴다.

출발 전 지도법사인 효산 스님(범어사 포교국장)은 "삼보일배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낸 것은 이미 절반을 도착한 것과 같다"며 "신심을 더욱 고양시키는 평생의 잊지 못할 시간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참가한 모든 분들이 마지막 도착점인 대웅전 앞에서 소원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마음을 모았고 삼보일배로 범어사 일주문까지 나아갔다. 일주문서 참가자들은 삼보일배를 회향하며 기쁨으로 향을 받고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서 법석을 열었다.

회향 법석서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절이란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다. 성철 스님께서도 절 수행을 통해 하심을 가르치셨고 법을 구하도록 하셨다. 시작할 때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떠한가"라 물으며 마음을 돌아볼 것을 권했다.

이어 스님은 "신라 자장 율사는 일보일배로 오대산을 오르며 문수보살을 친견했다. 이번 삼보일보 수행을 통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무사히 삼보일배를 해냈다는 기쁨과 부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만 가득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천규(75·청룡동) 씨는 "너무 행복하다. 요즘 마음 한편에 무거운 부분이 있었는데, 절하는 동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했다"며 "지금 그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기쁘다"고 말했다.

최지안(63·남천동) 씨는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도 했다가 다시 마음을 세우고 힘을 내기도 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모두 함께 하니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는 범어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현재 회원이 8000여명이 넘는 저력을 가진 단체로 불교 행사마다 기둥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20년 동안 매주 목요일에 무료급식으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연말 자비의 떡국 판매, 일일찻집, 범어사 전용 순환버스 동참금 지원, 부산시민연등축제, 독거노인 도시락 반찬 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미 기자

중학생 121명,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

금정중, 제42회 수계식 개최



게임기와 스마트폰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부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오계를 받아 수지할 것을 발원했다.

부산 금정중(교장 정진완)은 11월 22일 범어사 보제루서 '제42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는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계로 삶의 지침을 일러주기 위해 매년 열린다.

계사인 경선 스님(범어사 주지)은 학생들에게 삶의 등불이자 나침반이 되어 줄 계를 지키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계식에는 학생 121명, 학부모 10명이 받았으며 정진완 교장, 이석언 교법사를 비롯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정중 수계식은 1975년 10월 10일 광덕 스님을 계사로 시작해 매년 진행됐다. 현재 금정중학교 재학생은 1학년 86%, 2학년 88%, 3학년은 91%가 수계를 받았으며 교직원은 전체 100%가 수계를 받았다. 42년 동안 총 수계 인원은 학생 1만2,846명, 교직원 153명, 학부모가 241명이다.

하성미 기자

"한국 불교 쇄신 위한 기둥으로"

불교중흥회, 11월 19일 창립법회



불교중흥실천협의회가 창립됐다.

불교중흥실천협의회(이사 안국, 이하 불교중흥회)는 11월 19일 삼광사 지관전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불교중흥회는 불교가 현재 한국 정신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자성과 쇄신을 통한 새로운 출구 모색을 위해 창단한 단체다.

앞으로 불교중흥회는 청소년 및 대학생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직장 및 직능 불교단체를 후원해 포교에 이바지한다는 포부다. 아울러 재가 안거 제도 포교 활성화, 불교 콘텐츠 개발로 발전을 도모하고 불교포교대상을 수여해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했다.

창립법회는 부산과 경남에서 참여한 승가 및 재가 내빈을 소개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경과보고 및 부산불교의 현황과 전망을 일러주는 〈지지 않는 향기 연꽃 부산〉 봉정식이 이어졌다.

안국 스님은 "본 회를 창립한 것은 불교 발전을 위해 안으로는 정진하고 밖으로는 회향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며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불교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엔 증명대법주로 정관 스님(영주암 회주), 도성 스님(한국 테라와다 승정), 지도법사 혜총 스님(대각회 이사장), 무원 스님(삼광사 주지)과 이사 자관 스님(화엄승가회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삼광사, 영산재로 국난 극복 기원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국난 극복과 국정안정을 발원하는 '수륙영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불자 1만 명이 동참해 국난의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영산재는 11월 18~20일 진행됐으며 천태종 원로원장 운덕 스님, 증명법주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천태종 범음법패 보존회와 사단법인 부산영산재 보존회가 주관했다.

주지 무원 스님은 "국민들의 마음이 힘들고 아픈 때다. 영산재를 통해 국민들을 위로하고, 힘든 시기를 부처님의 큰 가르침으로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연등회, 불교 초월한 전통 세시 문화"

'2016년 팔관회 전통문화보전 학술대회'서


11월 23일 열린 '2016년 팔관회 전통문화보전 학술대회'에서 발제한 황경숙 민속학 박사.

"숭유억불시대인 조선에서도 사월초파일에 연등을 대문 밖에 달지 않으면 관료들이 벌을 내렸다. 대부분의 관료들이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당시 부처님 오신 날을 세시 명절로 인식한 조상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추정된다."

부처님 오신 날인 사월 초파일에 여는 연등행사가 단순한 불교 행사를 초월한 한국 전통 세시 명절로써 그 중요성을 이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1월 23일 범어사 설법전서 '2016년 팔관회 전통문화보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부산 연등회의 전승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황경숙 민속학 박사는 연등회를 단순히 불교문화로만 인식하기엔 전통성이 간과되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황 박사는 부산 연등회를 무형 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과제로 '학술적 연구'와 '역사성을 담은 재현성'을 제안했다.

황 박사는 먼저 "지난 2016년에 새롭게 추진된 '호기희', '느티떡', '콩찐이' 행사는 범시민 행사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이자 사월 초파일 연등회의 전통성을 계승, 부산 연등 축제의 독자성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행사와 아울러 전통성을 밝힐 수 있는 학술적 연구가 구체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하며, 그 문화가 대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서는 영명 스님(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 부교수)의 '팔관재계의 현대적 가치'와 박재혁 부산 문화재연구관의 '부산의 불교 문화재'도 발표됐다.

영명 스님은 팔관재계의 뜻과 근거, 계율적 위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 한국 불교에 끼칠 영향력을 전달했다.

영명 스님은 "팔관재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우리 삶에서 오는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 팔관재계는 오직 소비만이 삶의 척도이자 목표가 되어버린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사무총장 정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수능 끝난 고3·학부모 함께 즐기자!"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11월 20일 '불빛 음악회'



대구 수성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 11월 20일 '제1회 2016년 수능생과 엄마 및 지역민을 위한 망월지(뚜꺼비 생식처) 불빛(佛光) 음악회'를 경내 광장서 개최했다.〈사진〉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신도회(회장 이병철)가 주최하고 대구시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엔 사부대중 1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병철 회장은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과 예비 학생들, 뒷바라지한 엄마들,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콘서트다.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란 슬로건처럼 뜨겁고도 활기찬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경북대 밴드팀, 영남대 천마응원단, 선화여고 비화 댄스팀 등의 무대로 꾸며졌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 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제11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